

전체 주제:
이사야서에 있는 신성한 영론

메시지 31

하나님의 확실한 공홀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누림

성경: 사 55

I. 이사야서 55장은 다윗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확실한 공홀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-3절.

- A.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바울은 확실한 공홀을 ‘다윗의 거룩한 것, 미쁜 것’ 이라고 해석하고, 33절과 35절에서 그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자 거룩한 분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가리킨다.
- B. 이것은 또한 확실한 공홀이 만민에게 증인이요 인도자와 명령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이사야서 55장 4절에 의해 확증된다.
- C. 다윗의 씨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(롬1:3-4)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(고전15:45하) 다윗의 자손 마리아, 그리스도의 어머니(마1:16)를 통해 다윗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확실한 공홀이시다.
- D. 그분은 공홀들과 축복들이시오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신 ‘거룩하고 미쁜 것들’이며,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모든 풍성들을 지닌 영원한 언약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 은혜가 된다-사42:6하, 고전1:9, 참조 행13:43.

II.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확실한 공홀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제시한다.

- A. *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/ 돈 없는 자도 오라 / 너희는 와서 사 먹되 / 돈 없이 값없이 와서 / 포도주와 젖을 사라 /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/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/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/ 너희 마음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/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/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/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/ 곧 다윗에게 보이신 확실한 공홀이니라-1-3.*
 - 1.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그분께 와서 생수이신 그분, 영원한 언약과 다윗에게 보이신 확실한 공홀의 실재를 구하고 마시는 것이다-1절, 참조 요4:10, 14; 계22:17.
 - 2.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그분이 우리의 귀를 여시도록 허락함으로 생명 주는 물, 공급하시는 떡, 생생하게 하는 포도주, 순수하게 하는 젖이신 그분으로 배부르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-사55:1-3, 요6:57, 마9:17, 벰전2:2, 계3:16-20.
 - 3. 그럴 때 우리의 혼은 넘치는 즐거움의 기쁨이신 복합된 영으로, 살아 계시는 분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채워질 것이다-히1:9, 계1:18, 사55:2.

- B.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/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/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/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/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/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—4-5절.
1. 우리는 그분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과 몸의 머리로 세워 그분이 타락한 우주, 우주적인 ‘붕괴의 무더기’ 를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하시게 해야 한다—계1:5, 행1:8, 엡1:10, 22-23.
 2.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끌어당겨주시기를 구하여 우리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주 안에서 가장 큰 매력이신 그분을 따라 달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—사55:5, 아1:4, 참조 눅15:20, 히12:1-2.
- C.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/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/ 악인은 그 길을, /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/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/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—사55:6-7.
1. 우리는 그분을 찾고 불러야 한다—6절, 빌3:13-14.
 2. 우리는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그분께로 돌아가 그분의 자비와 널리 용서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—고후3:16, 4:4, 롬9:23, 요일1:7, 9.
- D. 여호와의 말씀에 /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/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/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/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/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/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/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/ 토지를 적시어서 /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/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/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/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/ 나의 뜻을 이루며 /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—사55:8-11.
1. 우리는 비와 눈인 그분의 말씀을 누려 하늘에 속한 그분의 생각과 길로 적셔져 성화되고 변화되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게 해야 한다—엡5:26-27.
 2.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,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, 번식하는 씨이신 그리스도를 뿌리고 산 떡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—막4:3, 14, 고전3:2상, 마24:45-47.
- E.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/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/ 산들과 작은 산들이 /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/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/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/ 화석류는 질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/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/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—사55:12-13.
1.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만한 누림은 여호와께 명예가 되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주적인 명성이 될 것이다—겔34:29-31, 계3:12, 엡1:6.
 2.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만한 누림은 영영한 표징, 영영한 기념이 되어 그분을 우주적으로 높여 찬양하고 그분을 으뜸 되시게 할 것이다—출13:4-9, 16:33, 마26:13.